
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<p>2021년 10월 13일(조간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* 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월 12일 11시부터 보도 가능</p>					
배포일시	2021.10.12.(총 4쪽)	담당부서	동물복지연구팀		
담당과장	김동훈 과장 (063-238-7050)	담 당 자	천주란 연구사 (063-238-7053)		


환절기 노령견 건강 상태 더 세심하게 살펴야 -적정 온·습도로 감기 및 피부염 예방...고단백 저지방 식품 급여-

- 농촌진흥청(청장 허태웅)은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가을철, **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노령견을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을 소개했다.**
 - 노령견을 구분 짓는 나이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, 일반적으로 소형견은 7세, 대형견은 5~6세인 반려견을 말한다¹⁾. 국내 반려견 가운데 6세 이상은 약 40%로 추정되며, 10세 이상도 18.1%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.²⁾
 - 노령견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눈, 피부, 구강 등의 질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.
- 환절기에는 **식욕 저하, 체중 감소, 몸 떨림, 보행 불안 등은 없는지 노령견의 건강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.**
 - 실내 온도는 20도 내외, 습도는 50~60% 정도로 유지해 춥거나 건조해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감기 등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.

1) 미국수의사회
2)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,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촌진흥청

-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염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평소보다 목욕 횟수를 줄이고, 목욕 후 털은 잘 말린 뒤 보습제를 발라주면 피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.
- 환절기에 평소보다 먹는 양이 적고 활동량이 줄어든 노령견에게는 **닭고기, 황태 등과 같이 고단백 저지방 식품을 급여해 기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 좋다.**
 - 노령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식품원료의 영양성분 정보는 ‘반려동물 집밥 만들기(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(www.nias.go.kr) → 반려동물 →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)’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 - 단, 먹이 섭취를 거부하는 날이 하루 이상 지속되거나 구토(3회 이상)나 설사(4회 이상)가 반복될 때는 반드시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.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 김동훈 과장은 “현재 수행 중인 노령견의 영양소 소화율 특성 연구,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펫푸드 개발 연구를 통해 노령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전했다.
- 9살 노령견을 키우는 이수영 반려인(인천광역시)은 “평소 관절에 좋은 먹이를 주고, 닭가슴살과 채소로 만든 영양식을 챙겨주고 있다. 규칙적인 산책과 정기검진으로 반려견 건강을 자주 확인해야겠다.”라고 말했다.

【참고자료】 환절기 노령견 건강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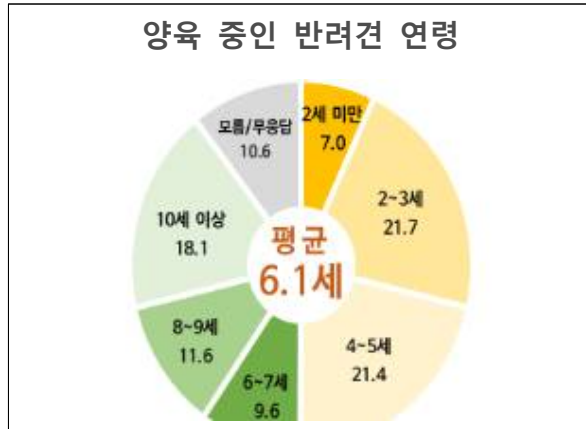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
농촌진흥청 동물복지연구팀 천주란 농업연구사 (☎ 063-238-7053)에게
연락 바랍니다.

<참고자료>

환절기 노령견 건강 관리

□ 국내 반려견 연령대별 비율



주) 양육 중인 개 중 총 1,086마리 기준, n=818명 (단위: %)

* 출처 : 2018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 보고서, 문화체육관광부 및 농촌진흥청

□ 수의사 진료가 필요한 노령견 증상

- 지나치게 잦은 기침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할 때
- 먹이 섭취 거부가 하루 이상 지속될 때,
- 호흡수가 분당 60회 이상 지속될 때
- 검은색 혹은 붉은 색의 설사를 할 때
- 3회 이상 구토 및 4회 이상 설사가 반복될 때
- 심한 복통 증상을 보일 때 등

□ 반려견이 노화로 직면하는 건강상의 문제

- 비만
- 치아문제
- 피부 및 모발의 약화
- 근육량의 감소
- 빈번한 소화장애
- 관절염
- 감염에 대한 저항력 약화